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발 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담당 : 언론대응팀 김희순·신미희·최은아)
제 목 [보도자료]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13차)
날 짜 2025-03-01 (총 8 쪽)

보 도 자 료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13차)

3·1혁명 106주년 맞아 전쟁도, 굴욕외교도, 윤석열도 없는 3.1절
함께 만드는 파면 이후 맞이할 세상, ‘사이다 파티’ 및 ‘천만의 대화’

1.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민주화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헌법정신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한 명백한 헌법파괴 내란이었습니다. 3·1혁명 106주년을 맞는 오늘(3/1)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13차)”을 진행했습니다. 비오는 곳은 날씨에도 윤석열도, 굴욕외교도, 전쟁도 없는 사회를 향한 열망을 안은 20만 명의 시민들이 집결하여 윤석열 즉각파면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함께 행진했습니다.
2. 본집회 시작에 앞서 16시부터는 ‘사회대개혁 이야기 다 나누는’ <사이다 파티>가 열렸습니다. 연영석 님의 공연을 시작으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중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중심 사회>,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의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과제 발표자로 ▲ 최희연(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중심 사회> 소위원장), ▲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비상행동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 정세은(충남대 교수,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 소위원장)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소위원장)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광장에 나온 시민들에게 사회대개혁 온라인 종합 페이지 ‘[천만의 연결](#)’, 시민들이 직접 사회대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3.9](#)

[시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파면 이후 만들어갈 세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관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이어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13차)에는 희망새, 독립합창단, 해리빅버튼의 다채로운 공연이 광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궈주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가의 후손 18인으로 구성된 독립합창단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기개를 힘찬 합창으로 전달해주었습니다. **▲ 이흥정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자주통일평화연대)**은 대표발언을 통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또다시 북한의 ‘지령’, ‘위협’을 언급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규탄하고, 진정한 반국가세력은 평양 무인기,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전쟁을 유도하려고 한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비상계엄의 어둠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빛의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힘이었다며, 우리가 평화의 파수꾼이 되어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 봄을 지키자고 강조했습니다(붙임 1 참고). 다음으로 **▲ 유승익 헌법학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주간 브리핑 발언을 통해 국무회의 심의도, 국회 통고도 없이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계엄 발동만으로 파면 선고는 확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서 전 과정을 지켜보았고,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으며, 대리인단과 윤석열이 ‘계몽’, ‘부정선거 음모론’, ‘대국민 호소’ 등의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가 반드시 낭독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4. 시민발언에서도 하루빨리 윤석열 파면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만들어갈 빛나는 세상을 꿈꾸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 **장은아 님**은 이화여대 참가단으로 매주 집회를 출석하는 시민으로서, 대학가에서 내란에 동조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심지어 캠퍼스에 침입하여 학생들을 위협하는 일당들의 혐오·차별적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언론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탄핵 반대 입장과 찬성 입장을 대립적으로 보도하는 것 또한 문제적이라며, 끝끝내 부조리에 맞서는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 밝혔습니다.

△ **장인숙 님**은 경동시장에서 25년째 노점을 하고 있는는 시민이라며, 현 동대문구청장이 취임한 2년 전부터 노점매대 강제철거 등 노점탄압이 벌어지고 있다고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서명을 받고 봉어빵을 하나 더 얹어주던 노점상을 언급하며 윤석열 퇴진에 지금도 연대하고 있는 노점상, 홈리스, 철거민 등 도시빈민도 함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 **조소연 님**은 야구팬으로서 프로야구가 개막하는 3월 22일이면 윤석열이 파면된 세상이 찾아올 것이라 기대한다며, 윤석열 뿐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이용해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이들과의 작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을 들어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의제가 ‘먹고사는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와의 차별과 배제가 없는 사회 속에서 함께 일상을 맞이하자고 외쳤습니다.

△ **박혜림**님은 시민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요구사항이 바로 헌법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아무도 피해보지 않은 계엄’을 운운하며 헌법을 무너뜨리는 이들이 주권자 앞에 사과하고, 무너진 상식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광장에 나설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5. 야3당 발언으로는 ▲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 **이나영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정의기억연대)**는 대표발언을 통해 106년 전 오늘은 식민지의 장막을 뚫고 자주독립, 민족자존, 평등과 평화를 외친 3.1혁명의 날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판결은 모르쇠로 일관한 윤석열과 자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내란세력들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3.1혁명의 정신을 되새기자고 강조했습니다(붙임 2 참고).
6. 이후 시민들은 시민대행진에 나섰습니다. 광화문에서 출발한 행진은 종각에서 종로2가 낙원상가를 거쳐, 헌법재판소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행진을 마무리하며 시민들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경제 파탄, 전쟁조장 평화위협, 기후위기 외면, 노동혐오 노조탄압,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차별과 탄압 등에 앞장선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라는 구호를 널리 외쳤습니다.

▣ 범시민대행진 개요

-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13차)**
- 일시 장소 : 2025. 3. 1. (토) 17:00 / 경북구역 4번출구
-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프로그램
 - 사회 : 김형남
 - 대표 발언
 - 이홍정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자주통일평화연대)
 - 이나영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정의기억연대)
 - 주간브리핑 발언
 - 유승익 헌법학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 시민 발언
 - 야3당 발언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 공연
 - 연영석(시민 '사이다 파티' 공연)
 - 희망새
 - 독립합창단
 - 해리빅버튼
- 행진 : 18시30분 경 출발, 광화문-종각-종로2가(낙원상가)-헌법재판소 앞
- 문의 : 정용준 공동상황실장(010-9258-7934), 서채완 공동상황실장(010-4150-4347). 끝.

- ▣ 붙임1. 대표발언문 / 이홍정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자주통일평화연대)
- ▣ 붙임2. 대표발언문 / 이나영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정의기억연대)
- ▣ 붙임3.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범시민대행진(13차) 웹자보
- ▣ 붙임4. 사회대개혁 이야기 다 나누는 <사이다 파티> 및 '3.9 시민대토론회' 웹자보 및 진행 개요

▣ 붙임1. 대표발언문 / 이홍정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자주통일평화연대)

일제강점기, 이상화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절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권자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까? 그렇습니다! 주권자 국민이 살아있는 한 역사정의와 평화주권은 실현되고, 자주평화통일을 이룬 민주공화국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지난 25일 윤석열은 최후 진술에서 다시 ‘북한의 지령’, ‘북한의 위협’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궤변입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여 전쟁을 유도하려 한 것은 오히려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아닙니까? 평온한 밤에 군대를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전복을 노린 반국가세력의 위협이 아닙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사태와 저 궤변들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반공전쟁정치가 비상계엄을 통해 거듭 반복되는 근본원인이 분단냉전체제에 있다는 것을! 윤석열이 한미군사동맹에 기대어 북풍공작으로 전쟁을 유도하고, 비상계엄요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노상원수첩’의 살생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수거’되었다면, 비상계엄 하 국가보안법에 의해 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혀 차단되고 ‘폐기’되었다는 것을!

헌법을 유린한 내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깊이 뿌리내린 분단냉전에 힘입어 저들은 다시 되살아 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주범 윤석열을 하루 빨리 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파면만으로 내란사태가 끝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옥죄는 분단냉전체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 북풍공작 없는 세상, 한미연합전쟁연습 없는 세상, 비상계엄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한미일 신냉전동맹세력들에 의해 고착화된 분단냉전체제를 넘어 남북이 어깨동무를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의 손을 함께 잡고,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지어 나갈 때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미완의 해방, 분단 80년에 맞는 3.1운동 106년! 오늘의 독립해방운동은, 남과 북이 끝나지 않은 전쟁체제 아래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남은 이 한반도에서, 식민지근대성과 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하고, 온전한 해방, 자주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인민들은 황제가 폐위되고 국권이 상실되었어도, 인민주권은 살아있다는 계몽된 각오로, 주권재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목숨을 건 독립해방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의 어둠을 밝힌, 빛의 광장의 독립해방운동가, 시민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까? 우리가 오늘의 독립해방운동가가 되어 외치는 광장의 외침이 봄을 부르는 노래요, 우리가 봄을 지키는 평화의 파수꾼입니다.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을 끝내고 민주의 봄, 자주평화통일의 봄을 앞당깁시다!

▣ 붙임2. 대표발언문 / 이나영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정의기억연대)

106년 전 오늘, 선조들은 식민지의 장막을 뚫고 자주독립과 민족자존, 평등과 평화를 외치며 3.1혁명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일제의 폭압과 착취에 맞서 일어난 민중의 함성이 전 국토를 뒤흔들었고, 민주공화정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과 절멸의 시간을 견디고 해방을 맞이한 지도 이제 8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임기 내내 굴종적 한일 관계로 국민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기며 역사정의를 훼손해 왔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한일정책협의단을 파견하고 ‘제3자 변제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짓밟으며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쟁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판결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2015 한일합의 준수’만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극우에 빙의한 자들을 요직에 앉혀 역사의 시계를 조선총독부 시절로 되돌리려 하더니, 마침내 12.3 친위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후에도 파렴치한 궤변과 거짓선동으로 극우 파시즘의 괴수가 되려는 듯, 내전 확장과 민주주의 붕괴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윤석열과 극우 내란세력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서부지법에 폭동을 일으키고 대학가를 돌며 패악질을 일삼는 자들과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반대를 외치는 자들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매주 수요시위에서 ‘위안부는 매춘부’, ‘반일은 정신병’이라 외치며 일장기를 흔드는 자들, 소녀상을 테러하는 자들과 다를까요.

애 통하게도 냉전체제로 민족 분단을 겪으며 청산하지 못한 역사적 적폐에서 자라난 독버섯 아닙니까. 일제에 부역하며 권력을 누리던 자들, 분단체제를 등에 업고 반공·친미, 사이비민주주의자로 변신한 자들이 그 뿌리 아닙니까. 한반도 불법강점과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집단학살 등 모든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재일조선인과 우리학교를 차별하며, 여전히 일본 군국주의 파시스트들과 한 몸이길 바라는 자들 아닙니까.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자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 기괴한 식민지·반민족 극우 파시스트들을 단호히 심판합시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극우·내란 세력이 청산되는 그날까지 매주 토요일 광장에서 우리의 힘과 의지를 보여줍시다. 3월 8일 여성대회, 3월 15일 집중행동의 날, 3월 9일 사회대개혁 시민 대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3.1혁명의 정신을 되새기며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합시다.

마지막으로, 전쟁과 차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셨던 고 길원옥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 붙임3.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범시민대행진(13차) 웹자보

전쟁도
굴욕외교도
윤석열도 없는
3.1절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3차)

**범시민
대행진**

3월 1일 (토) 17:00
경북구역 4번출구

- 16시 사회대개혁 '시민 사이다 파티' 공연 연영석
- 17시 본대회 공연 희망새, 독립합창단, 해리빅버튼
- 이주의 행진곡 독립군가, 동지가

비상행동 공식 시민후원 카카오톡 7942-09-53862
상규협(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범시민대행진)

시민발언신청 yonoot.short.gy/voice

3/8(토) 오후 5시
공회당, 14차 범시민대행진

3/1 공연참여

독립합창단 연영석

희망새 해리빅버튼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3차) 범시민
대행진

- 16시 사회대개혁 '시민 사이다 파티' 공연 연영석
- 17시 본대회 공연 희망새, 독립합창단, 해리빅버튼
- 이주의 행진곡 독립군가, 동지가

비상행동 공식 시민후원 카카오톡 7942-09-53862
상규협(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범시민대행진)

시민발언신청 yonoot.short.gy/voice

3/8(토) 오후 5시
공회당, 14차 범시민대행진

▣ 붙임4. 사회대개혁 이야기 다 나누는 <사이다 파티> 및 '3.9 시민대토론회' 웹자보 및 진행 개요



● 사회대개혁 이야기 다 나누는 <사이다 파티>

- 일시장소
 - 3/01(토) 일시장소 동일, 사이다 파티 3차 [돌봄 / 환경 / 경제 / 노동 소위원회]
 - 3/15(토) 일시장소 동일, 사이다 파티 4차 [언론 / 지역 / 정치 / 안전 소위원회]
-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

● 3.9 시민대토론회 -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 일시장소
 - 2025년 3월 9일 (일) 오후 1시 ~ 4시, 성공회대 정보과학관 5층
- 모집 및 신청
 - 2/22(토) ~ 3/3(월) 10일간 사전 신청으로 모집(최대 300명)
 - [\[참가 신청 바로가기\]](#)
- 문의 :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